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최종 결과보고서

모듬명		중4중시				
모듬 구성원	대표	이름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제안 영역		1. 성적 평가 방법				
		2. 교양 교과목 수업 평가				
		3. 수업 방법				
		4. 수강 신청 교육 환경				✓
		5. 교양 인식 개선				
		6. 기타				
1. 프로젝트 주제는 무엇인가요?						
CNU E&M 수강신청 ⇒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를 차용한 CNU E&M 수강신청 도입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한 수강 신청 방법 개선]						
현재 전남대학교 수강 신청은 선착순 수강 신청입니다. 하지만 선착순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집니다.						
① 평등성 문제 학생들의 인터넷 속도나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에 따라 선착순에서의 평등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와 성능이 뛰어난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신청을 빠르게 마칠 수 있어, 속도나 성능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선택에 있어 학년별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4학년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필수 교양이나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선착순 수강 신청의 경우 본인의 전략적 선택이 통하지 않고 신청 속도만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저학년은 선착순 경쟁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음 학년에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4학년은 졸업학점을 맞춰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 선착순 수강 신청이 4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 계획의 유연성 및 필요한 수업 선택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4학년 학생들이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적 문제 우리 학교의 경우 아침 9시에 선착순 수강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강 신청은 5~10분 안에						

끝이 납니다. 이 시간대에 많은 학생이 동시에 수강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을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서버에 대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다운이나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 문제는 우리 전남대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새로운 서버를 적용해 기술적 문제를 완화하였으나, 동계 계절학기를 수강 신청할 때 DB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 신청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 일정이었던 11월 2일에서 다음 날인 11월 3일로 수강 신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③ 학생들 간 경쟁 심화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모든 학생이 제한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빠르게 신청을 마친 학생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수업을 얻고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수업 매대는 경제적으로 강한 학생들이 이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원하는 강의를 얻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업 매대 또한 전남대학교의 큰 문제입니다. 이번 연도 총학생회 역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신 서버와 함께 거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신 서버에 시스템을 추가할 경우 서버 부담으로 또다시 기술적 결함(서버 다운)이 발생할 수 있어 도입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최우선 목표를 서버 안정화로 두고 거래방지 시스템은 잠시 포기하는 수를 뒀습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 대학은 수업 매대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시간 제한성

선착순 수강 신청은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선착순 수강 신청은 특정 시간대(우리 대학의 경우 아침)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활동적인 학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일과가 수강 신청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수강 신청은 단 1초의 차이로 듣고 싶은 수업을 모두 잡은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작은 차이가 원하는 수업을 얻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학습 계획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의 시간적 제한을 줄여야 합니다.

⑤ 수강신청 예약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이 선착순 수강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시스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수업의 다른 분반/같은 시간대의 다른 수업을 동시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반 또는 동일 시간대 여러 수업을 담아놓고 선택을 비교하는 것은 최적의 수강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이 있다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효율적인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정시 추가합격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정시 추가합격생은 수강신청 예약 기간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이용 하지 못하고 당일 간편 수강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수업에서 타학생들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선착순 수강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강신청 예약시스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통해 한 학기의 수업을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감에, 일정한 이수 조건 안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수강 신청으로 한 학기의 수업, 나아가서는 졸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강 신청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1) 타 대학 수강 신청 방식 조사

우선 전남대학교의 선착순 수강 신청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강 신청 방법들을 조사하였습니다.

① **마일리지제**
연세대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 시 마일리지 가 주어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에 마일리지를 원하는 만큼 배팅하는 방식입니다. 마일리지는 총이수학점에 따라 부여되며, 최소 및 최대 마일리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제시한 순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순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마일리지 수강신청은 특정 과목 수강에 대한 욕구의 정도를 학생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본인의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지를 배팅하고 수업을 따내는 과정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연세토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도박성이 짙은 수강 신청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② **타임티켓제**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타임티켓이란 학생이 수강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각의 기준은 해당 학생의 입학 이후 총 이수학점입니다. 즉, 학점을 많이 이수한 학생일수록 먼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티켓 수강신청은 총이수학점 순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해 학업을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이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의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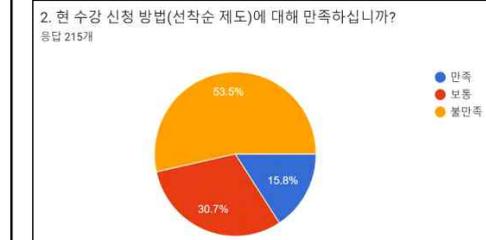
③ **순위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강신청 기간 내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면, 학년(높은 학년이 우선순위)-직전 학기 이수학점(많은 학생이 우선순위)-직전 학기 성적(높은 학생이 우선순위)을 고려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또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 자유롭게 시간표를 변경하며 수시로 변동되는 자신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업을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이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의를 키울 수 있으며, 고학년생에게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졸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학생들이 뒤늦게 수강신청을 해 안정권 학생이 갑자기 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을 우선순위에 반영해 학업저성취자 학생이 원치 않았던 수업을 수강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시 학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양극화와 고착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④ **랜덤 추첨제**
카이스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면, 정원이 초과한 수업에 대해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요가 많은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학생의 능력이나 성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랜덤 추첨제의 특성상 당첨되지 않은 학생들은 수강을 포기해야 하며, 운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고 낙점된 학생이 차선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추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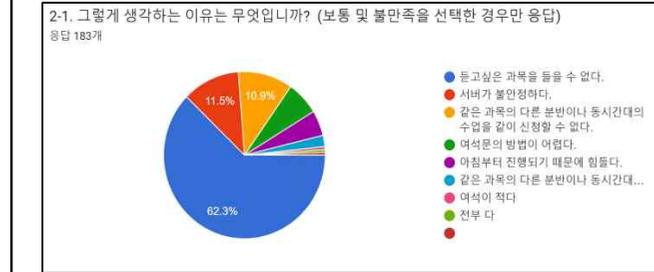
탈락해 시간표를 아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을 고려해야 하는 4학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분리제**
인하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하대학교는 문·이과를 구분하여, 서울대학교는 홀수 학번과 짝수 학번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날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업 별 TO는 양일에 걸쳐 배분됩니다. 분리제 수강 신청은 경쟁률이 높은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리제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과로 나누어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문과 학생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의 수강 정원이 소진되어 수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의 특성에 따라 수강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 과학 수업은 자연계열 학생이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강 정원에서 차이가 있음)
저희는 위의 다양한 수강 신청 방법 중,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 신청'이 가장 공평하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착안해 전남대학교만의 새로운 수강신청 방법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전남대학교 재학생 설문조사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현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지와 마일리지 수강 신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기 위해 **전남대학교 학생 215명**(1학년 53명, 2학년 67명, 3학년 46명, 4학년 45명, 휴학생 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현 선착순 수강 신청에 '불만족'하는 인원이 53.5%**(1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통에 응답한 인원이 많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만족(33명)에 비해 많은 인원(115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현 수강 신청에 대해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불만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114명)였으며, 그 외 불만 이유는 '서버가 불안정해서'(21명), '같은 수업의 다른 분반이나 같은 시간대의 수업을 같이 신청할 수 없어서'(20명) 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혁신본부의 '학생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만 있거나(73명) 아예 모르는 경우(73명)가 많았으며,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의 경우 아예 모르는 경우(164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마일리지 수강 신청의 방법, 일정, 목적 등을 담은 정보제공형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설문지에 첨부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신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STEP.1 마일리지 수강신청이란?
듣고 싶은 과목에 마일리지를 투자!
마일리지 부여 → 원하는 강의에 투자 → 강의 신청 성공
학생 개인에게 학기별로 일정량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학생은 개별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 우선순위(총 이수학점 등)에 의하여 수강신청 교과목을 선정합니다.

STEP.2 마일리지 수강신청 일정

제도	방식	내용
수강신청 (2월~4월)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는 모든 과목의 '학생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학기당 총 사용 가능 마일리지 4배, 한 과목에는 최대 1회까지 사용할 수 있음)
신청가능과목 조회 (2월)	학생지원센터	*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정한 '합격률'은 수강신청을 위한 '합격률'이 아닌 '합격률'을 기준으로 정한 '합격률'입니다. 신청이후, 최종 이수신청여부, 출석여부, 출석률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격률 기준은 학기당 마일리지 사용 가능 기간 종료 시점 기준)
추가 수강신청 (2월)	학생지원센터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기간이 만료된 과목은 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만료된 과목은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2월)	학생지원센터	* 수강신청 시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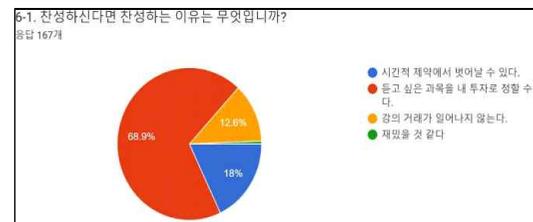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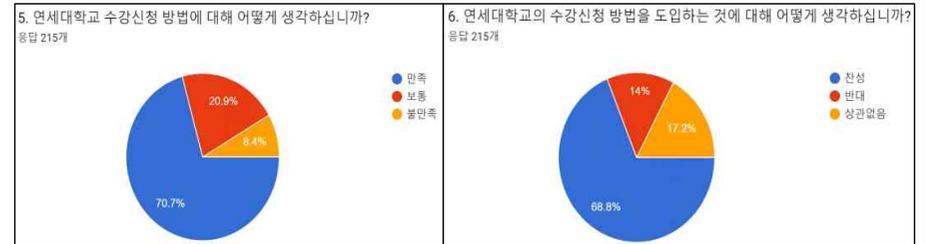
학생들은 4월이라는 기간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를 원하는 강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부여한 학생부터 강의 수강을 인정합니다.
신청내역 배정 후 정원 초과로 실패한 학생들은 대기번호 순위를 부여합니다.

STEP.3 마일리지 수강신청의 목적
선착순 수강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1. 특정 시험의 집중연습, 과목의 매에 대응을 해결하기 위함
2. 특정 과목 수강에 대한 욕구의 정도를 학생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본인의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
3. 수강신청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반영된 기초자료가 수집될 수 있어 과목의 정원 조정, 추가 개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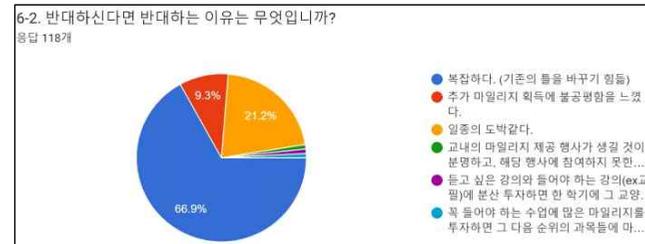
이후 해당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마일리지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70.7%(152명)가 만족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신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68.8%(146명)가 찬성했습니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듣고 싶은 수업을 내 투자를 정할 수 있어서'(115명)였으며,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30명), '강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서'(21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14%(30명)로, 주된 반대 이유는 '복잡하다(기존의 틀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한다)'였습니다.



⇒ 전남대학교 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3.5%의 학생들이 현 수강 신청 방법(선착순)에 불만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70.7%가 만족하였으며, 이를 전남대학교에 도입하는 것에 68.8%가 찬성하였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학생들이 전남대학교의 선착순 수강 신청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수강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연세대학교 재학생 설문조사

이후 실제로 마일리지 수강 신청을 경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재학생 6명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서술형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학생은 학년을 다양하게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마일리지 수강신청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다른 수강 신청 방법에 비해 마일리지 수강 신청만이 가지는 강점은 '공정함, 시간 제약이 덜함, 원하

는 수업을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점도 존재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으로 '총 이수학점이 적으면 불리하다, 원하는 수업 신청이 실패한 경우 플랜B를 실행하기가 어렵다'를 꼽았습니다.

자신 외의 주변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마일리지 수강 신청이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만한 수강 신청이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동의'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였냐는 질문에는 '쉽게 이해했다'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마일리지의 양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라고 답하며 바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제도가 선착순 제도보다 공정하냐는 물음에 모두가 '마일리지 제도가 더 공정하다'라고 답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학생들과 주변인(재학생)들은 마일리지 수강 신청에 만족하며, 마일리지 수강 신청에 대해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만한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강 신청을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하였으며, 마일리지 제도가 선착순 제도에 비해 더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마일리지 수강 신청을 경험하고 있는 연세대 재학생들 또한 마일리지 제도에 만족하고, 공정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 적용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1> 연세대 마일리지 수강 신청에 대한 인터뷰 정리

연세대 마일리지 수강신청에 대한 인터뷰	
<p>참여자 : 연세대학교</p> <p>1.신학대(경영육전) 22학번 (여)X00 2.소프초중등신학학과 22학번 (남)X00 3.소프초중등신학학과 22학번 (여)X00 4.물어물연구회 22학번 (남)X00 5.홍콩대학 22학번 (남)X00 6.기체공학과 22학번 (남)X00</p>	<p>4. 원하는 과목을 정중적으로 수강신청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p> <p>1. 수강별 선착순 2. 지난 학기 마일리지 확인 3. 전년도 혹은 전학기 마일리지 신청량과 확인. 예마 같은 인원 확인 후 전략적으로 분배 4.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확인 5. 경계를 확인. 눈치싸움 6. 선착순 대응 노력</p>
<p>1. 원에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나요?</p> <p>1. 경영전공 전대가 12라서 총이수학점이 낮으면 너무 불리해요. 수업을 못들겠음 2.네 3.네 4.네 5.ㅇㅇ 6.나름 만족</p>	<p>5. 수강신청에 대한 주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p> <p>1. 과바라가 심함 2. 무난함 3. 원할 선착순에 비해 원하는 과목들을 못 잡게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1-2명) 외 과목들은 잡을 가능성이 높음 4. 긍정적임 5. 연세대 아닌 다른학교 사람들은 부러워 하는 듯? 6. 면해서 만족함</p>
<p>2. 연세대 수강신청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p>1. 공정하긴함 2. 편한한 시간대 3. 시간제안이 없음 4. 공정하다 5. 신청 기간이 길어 좋음 6. 진학 원하는 과목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음(마일리지 없이 보자)</p>	<p>6. 연세대 수강신청이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만한 수강신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의하신다면,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p>1. 그래도 공정해서 좋음 2. 반대함. 아무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4학년한테 전화가 되어있는 것 함 3. 의견없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4. 중의 5. 긍정하기 때문에 좋다 6. 복지인한 사람은 선착순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하시는 아닐</p>
<p>3. 수강신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p> <p>1. 총이수학점 부족 2. 결리가 나옴(가게) 하였없이 기다려야함 3. 플랜B 원하는 과목 신청에 실패할 경우를 실행하기가 어려움 4. 마일리지 총량의 부족 5. 얼음 6. 과목 수강을 실패하면 다른 과목 수강신청하기 어려움</p>	<p>7. 처음 수강신청 방법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나요?</p> <p>1. X 2. 그냥 뒤 푸난하게 이해함 3. 네 4. 이해함 5. 후야 느낌으로 이해함 6. 쉽게 이해함</p>
<p>3-1. 위의 답(가장 힘들었던 점)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p>2. 조금 더 빨리 마무리함 3. 마일리지 제도를 오기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4. 어쩔 수 없는것 5. 마일리지 제도의 단점인 것 어쩔수 없다고 생각함.</p>	<p>8.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마일리지의 양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것을 좋게 생각하나요?</p> <p>1.적당함 2.무난함 3.적당함(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4.적당 5.좋다 6.무난하다</p>
	<p>9. 마일리지 제도가 선착순 제도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p>1.공정합니다 2.공정하긴함 3.바르하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제각같이 신청할 수 있게 조금 더 공정하다고 생각함. 4.공정함 5.공정합니다 6.공정하다고 생각해요</p>

저희는 앞선 2번의 설문 조사를 통해 현 전남대학교 선착순 수강 신청에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 신청을 도입하는 것에 전남대학교 구성원과 연세대학교 구성원 모두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 문헌 조사,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을 기술

1) 교양수강신청(마일리지선택제)

학생 개인에게 학기별로 일정량의 마일리지를 제공(한 학기마다 리셋)하고 학생은 개별 교양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마일리지를 배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마일리지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가) 마일리지 제도는 교양 수업에 한정합니다. 전공과목의 경우 기존의 전남대학교 수강 신청 방법을 진행합니다.

나) 학생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은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허용학점을 기초로 부여하여 다양한 학과별 졸업이수학점 및 학기별 신청과목 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4가 기본 원칙)

다) 학생은 한 과목에 최대 본인 마일리지의 1/2(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 36으로 제한)까지 배분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과목에 최소 1 마일리지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는 적은 수의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이 우선권을 갖는 부적절한 경우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라) 한 과목에만 36의 마일리지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은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이 공평하지 못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36, 36)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최대한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점자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 학생이 배분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수업 별로 순위를 부여하고, 정원 범위까지의 순위자만 수강 신청을 허용합니다. 동점자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정렬합니다.

- ① 특수 교육 대상자 여부
- ② 신청과목 수 (학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6개까지만 반영함)
- ③ 졸업신청 여부
- ④ 초수강(재수강이 아닌 경우) 여부
- ⑤ 총이수학점/졸업이수학점

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부여되는 마일리지(교양 수강신청)의 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졸업학점	제한학점	실제적용 제한학점	비고	마일리지 총량
120학점 졸업 학과(부)	16학점	17학점	*수강신청시 제한학점에 1학점이 이미 가산되어 있음	68
130학점 졸업 학과(부)	17학점	18학점		72
140학점 졸업 학과(부)	18학점	19학점		76
150학점 졸업 학과(부)	20학점	21학점		84
160학점 졸업 학과(부)	24학점(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는 18학점)	24학점(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는 19학점)		96
수의예, 의예, 치의예과	21학점	22학점		88
학년제	51학점	51학점		204

2) 가산점 제도

가) 성장마루, 취업진로포털 활동에 참여하면 교양 수강 신청에 사용되는 마일리지 1점~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 수 제한에 따라 1회 참여당 가산점 1점~3점 지급합니다.

예시 - 총이수학점 140학점인 학생이 성장마루 프로그램(3점)에 참여 시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 72(총이수학점이 140학점인 경우)와 프로그램 참여 가산점 3점을 포함한 74 마일리지가 됩니다. 위 학생은 다음 학기에 74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산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학기(6개월)가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수강 신청에 참여할 시에도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3) 결과공개 및 수강 신청 일정

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수강 신청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공과목의 경우 기존의 전남대학교 수강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학년별 선착순 방법으로 진행)

나) 공통기간, 정정기간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모두 기존의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다) 교양과목 수강 신청 기간 4일 중 3일은 1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만, 마지막 수강 신청 날은 도박성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수강 신청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경쟁률과 수업 당 평균 마일리지 배분을 공개하여 다음 학기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신청내역의 배정결과를 추가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공개하여 학생이 본인의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의 수강 신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마일리지 수강 신청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학기의 수업 별 최소, 최대, 평균 마일리지,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여 다음 학기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 2> 수강신청 일정 예시

24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 전공과목 수강신청 일정 예시					
전 공 과 목	4학년	교 양 과 목	전 학 년	'24.8.4.(금)	교양과목 수강신청 '24.8.4.(금):09:00 ~ '24.8.7.(월):18:00 전공과목 수강신청 당일 09:00 ~ 18:00
	3학년			'24.8.5.(토)	
	2학년			'24.8.6.(일)	
	1학년			'24.8.7.(월)	
전 학년(공통)				'23.8.8.(화) ~8.9(수)	09:00 ~ 18:00
수강신청 정정				'24.9.1.(금) ~9.7(목)	
배강과목수강신청자 수강신청 정정				'24.9.18.(월) ~9.19(화)	
수강취소 신청				'24.9.25.(월) ~9.26(화)	
정상출석부 출력				'24.9.27.(수)	

<표 3> 결과 공개 예시

▶ 마일리지 수강신청 결과 (2023년도 2학기)					
과목코드·분반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CLT0041-6	철학과살	3	김혜영		
강역시간	강의실	정원	참여인원		
월5월6수5	인3-305	60	134		
학년별정원					
1	2	3	4		
15	15	15	15		
마일리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Max Mileage		
1	36	16.72	36		
▶ 마일리지 순위 결과					
순위	마일리지	신청 과목수	졸업신청	초수강여부	총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1	36	6	Y	Y	0.9722
2	36	6	Y	Y	0.8746
3	36	6	Y	N	0.9823
4	36	6	N	Y	0.2356
5	36	3	Y	Y	1.0000
⋮					

4) 수업 개설 및 정원 조정

가) 마일리지 선택제로 진행되는 수강신청, 신청내역배정 및 결과공개 기간에는 과목의 정원에 의하여 신청내역배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원의 조정이 불가하며, 수업 개설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한으로 정원을 개방해야 합니다. (강의실 최대 수용인원의 90% 이상 권장)

나) 선착순 신청으로 운영되는 공통 수강신청, 수강 변경 기간에는 정원의 조정이 가능하며 강의실의 수용 범위 안에서 선착순 신청자들의 수강신청을 허용하기 위하여 정원 확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가) 동 시간대 수업 혹은 같은 수업 다른 분반 신청 시 동일한 마일리지 배팅이 불가능합니다.

나) 학생은 ②에 따라 수업 별 마일리지를 다르게 배팅해야하며, 두 수업 모두 수강 신청 성공 범위 내에 들었을 때 높은 마일리지를 투자한 것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다) 공통 수강신청, 수강신청 정정, 계절학기 기간에는 기존 전남대학교의 방식을 유지합니다.

라) 학과에서 정해진 교양필수 수업(분반 및 수강학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은 해당되는 학생들만 배팅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수강 신청을 위해 교양필수 과목이 있는 단과대학은 전공자만이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개별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시 -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8분반)'가 경영학과 교필로 지정된다면, 경영학과 학생들만 배팅 가능, 타 학과 학생은 미달 시에만 공통기간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함(공통기간의 경우에는 선착순 수강 신청).

6) FAQ

가) <CNU E&M> CNU E&M이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 신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저희 CNU E&M의 가장 큰 차별점은 성장마루, 취업진로포털과 연계한 마일리지 가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학점에 따른 마일리지 배분은 졸업학점이 적은 학과의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맥스 마일리지(한 수업에 최대 36점)가 존재하더라도 마일리지가 적은 학생은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연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총이수학점이 낮은 학과라서 불리하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마일리지 가산점을 고안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산점을 통해 졸업학점에 따른 마일리지 차이를 일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산점을 10점으로 두어 학생들이 격차를 줄일 기회를 열어두되, 또 다른 불공정함을 낳지는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시간대 수업 혹은 같은 수업 다른 분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입니다. 다만 동일한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이 겹치는(같은 수업 다른 분반 또는 동 시간대 다른 수업) 수업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여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최대한의 다양성이 보장된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기간 중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 수강 신청이 종료된 후 최종 경쟁률과 수업 당 평균 마일리지 배분을 공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의 응답 중 '원하는 수업 신청이 실패한 경우 플랜B를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CNU E&M> 교양 수강 신청에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저희가 고안해낸 CNU E&M은 교양수업 수강 신청에만 이용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공수업과 교양수업 간 서로 다른 목표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 수업은 학생들이 해당 전공을 이수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수강을 권고하는 학년 및 학과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여석 배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자과 여석이 많고 타과 및 부전공 여석은 적은 편입니다.

A(경영학과, 전공심화)와 B(문화인류고고학과, 부전공으로 경영학 선택)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학생 모두 4학년이며, 졸업을 위해 '경영사례세미나'라는 경영학과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부전공 여석이 전공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B 학생은 A 학생과 똑같이 기본 72 마일리지(130학점)를 받지만, 경영사례세미나 수업에 더 많은 마일리지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B 학생은 마일리지 배분에서 불리함을 느낄 것입니다.

교양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탐험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다루므로 수강 학년·수강 학과도 정해져 있지 않을뿐더러 학년별 여석만 존재합니다(학년별 여석 차이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위의 사례를 그대로 '경영학개론' 교양수업에 적용해보면, A 학생과 B 학생 중 특별히 어느 누군가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교양 수강 신청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에 맞게 마일리지를 할당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양 학생평가위원은 교양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공 수강 신청까지 논하면 위의 사례를 포함해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양에 중점을 두고 CNU E&M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CNU E&M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보완하여 전공 수업으로까지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초과학점> 직전 학기에 3.75 이상의 학점을 받아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마일리지가 부여되나요?

☞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마일리지도 추가로 부여하면 이는 이중 혜택이 됩니다. 이는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마일리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학점을 추가로 듣게 되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마일리지 가산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기본 마일리지> 학과마다 기본 마일리지 총량이 달라 높은 마일리지를 부여받는 학생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 기본 마일리지 총량은 총이수학점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높은 마일리지를 부여받는 학생은 더 많은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한 수업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 수는 36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공정하다 느낀다면, 마일리지 가산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 <마일리지 가산점> 마일리지 가산점을 주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 추가 마일리지는 총이수학점에 따른 마일리지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며,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전남대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주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한선(10점) 및 사용 기간(6개월)이 존재하기에 또 다른 불공정함을 낳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 <마일리지 가산점> 휴학을 하면 마일리지 가산점이 소멸하나? 중도휴학자는 어떡하나요?

☞ 마일리지 가산점은 ①사용 기간(6개월)이 지난 경우, ②수강 신청을 진행한 경우 사라집니다. 휴학생은 본인의 선택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거나(①), 수강 신청을 하는 상황(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일리지가 보존됩니다. 따라서 휴학 이전에 쌓아둔 마일리지를 복학 후의 수강 신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휴학자는 수강 신청을 이미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 배분을 한 것이므로 마일리지 가산점이 소멸합니다. 이는 휴학이 결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타인의 수강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수강 신청을 진행해 자리를 얻고 공통기간에 타인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여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 <계절학기> 계절학기에는 마일리지 수강 신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학생별 마일리지 산출 문제 및 계절학기 수업 수에 따른 문제가 있기에 계절학기는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는 6학점이라는 제한학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학생당 듣는 수업 수가 매우 적습니다. 열리는 교양수업 또한 정규 학기와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선택폭이 적은 계절학기에서는 마일리지 제도가 선착순 제도의 효용을 이기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계절학기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서버> 전공은 그대로 선착순 신청이니 서버 부하 완화에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 CNU E&M은 교양 수업은 마일리지 수강 신청으로, 전공 수업은 선착순으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서버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강 신청을 처리하게 되며, 이로써 서버 부하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선착순으로 직렬 처리하고, 교양 수업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분산된 방식을 통해 서버가 여러 요청을 특정 시점에 처리함으로써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 학생들이 마일리지를 배분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서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은 서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인 수강 신청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방지 시스템을 추가할 여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제한성> 전공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나요? 시간 제한성이 어떻게 극복되나요?

☞ 학생들이 CNU E&M 도입 이후에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현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였으며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듣고 싶은 수업을 내 투자를 정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통해 시간 제한성이 선착순 수강신청의 문제점은 맞지만,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은 여전히 선착순이기에 저희 CNU E&M이 완전하게 시간 제한성을 극복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양에서만큼은 시간 제약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교양 수업을 신청할 때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고려를 하여 시간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고, 듣고 싶은 수업을 본인의 선택으로 들음으로써 주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에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FAQ ③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차) <도입 시 문제점>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마일리지 수강신청이 생소하고 선착순 수강신청이 더 익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남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복잡하다(기존의 틀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 모두 '이해가 어렵지 않았다, 금방 이해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신입생일 때 전남대학교의 선착순 수강 신청을 어려워했던 점을 떠올려본다면 이는 새로운 방식이 주는 낯설에 대한 걱정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낯설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정보제공, 각 단과대학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 및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수강 신청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착순이 아닌 마일리지 기반의 우선순위 결정은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평등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마일리지를 투자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하는 수업을 듣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강의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각 학생이 자신의 전공 및 흥미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졸업예정자인 4학년들은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수강 신청에 실패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교양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어 학업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착순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강 신청 홈페이지 동시접속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서버 증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의 IT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서버에 거래방지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마일리지 가산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행사 및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활발한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학문 외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높임으로써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마일리지를 활용한 학생들 간의 경쟁은 학업 외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성을 유도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해지고 학교 전체 차원에서 캠퍼스 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학교생활 만족도의 증가와 대학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은 전남대학교의 학문적인 발전과 즐거움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